

The Necessity of Reading Guide for the over Five Years Old Children

5歲以上 未就學 어린이를 위한 讀書指導의 必要性

엄 운 영
대구시립도서관

1. 現代人과 讀書

讀書란 인쇄물을 媒體로하여 우리들 人間生活을 幅 넓고 豊요한 知識을 쌓게하고 間接經驗을 通해 個個人의 教養을 넓히기 위한 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讀書는 무엇보다도 社會生活을 通해 能率的으로 모든 일을 營爲해나가고 向上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될 必要한 知識이며, 難解한 問題의 解決方法을 제공하여 주는 重要한 역할을 한다고 보겠다.

인쇄물은 著者の 生存與否와 關係없이 現世以前의 여러 遺産을 傳達하므로써 우리들 自信과 우리들 日常生活을 理解해 나가는데 크나큰 創造的인 能力을 일깨워주는 源泉的인 産室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生活에 깊은 영향을 안겨주는 冊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이 위에 인쇄된 장식물에 불과한 것이다.

讀書意慾이 充滿한 이에게 독서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冊은 그 効用價値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계문명이 急速히 發達되어 가는 오늘날의 人間生活은 매우 複雜多樣化한 狀態에서, 많은 時間과 努力을 要하는 終來의 方式을 탈피하여 보다 쉽고 安易한 方法을 追求하는 풍조가 漫연되어 가고있다.

映像의 media가 보급 發達함에 따라 讀書生活이 變形되고 이 같은 mass media의 물결은 漸進的으로 讀書生活뿐만 아니라 生活全般에 걸쳐 時間을 再分化시켜 가고 있는 實情이다.

특히 電波媒體는 아동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앞으로 자라나는 世대에 독서를 통한 정서교육함양이 어렵지 않을가 豫見된다.

2. 讀書指導의 必要性

오늘날의 世界는 날로 發展해 가는 諸般分野에서 成人이나 兒童을 막론하고 과거보다는 더 나은 讀書能力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課題를 안고 있다.

讀書는 人間이 營爲하는 모든 分野에 걸쳐 術한 問題를 解決하고 사색하며 익히는데 重要한 媒介의 역할

을 담당하여왔다. 독서가 학교 교육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좀더 광범위한 일상생활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造成 發展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重要한 方法인 것이다.

이처럼 重要한 事實을 우리들 成人들은 수수 방관하는 姿勢로 임해서는 안되겠다. 스스로가 독서方法을 찾고 독서技能을 갈고 닦아 나갈 수 있는 基를 造成해 나갈 수 있도록 研究해야 하겠다.

冊을 對하는 태도에서 시작하여 내용을 올바르게 理解할 수 있는 能力에 이르기까지 주위에게 유능한 지도자의 充分한 배려가 있어야 보다 높은 次元의 讀書力을 키워 올바른 비판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바람직한 讀書人을 育成하려면 기초독서능력이 거의 完遂되는 5세 이상 유년시절부터 계획적으로 독서지도를 實施해야 한다고 필자는 主張하고 싶다

3. 圖書와 mass-media의 長短點

mass media가 現代人의 生活에 주는 영향을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mass media의 광활한 영역은 우리들의 사고력을 弱화시켜주고 있다. 순간적으로 傳達되는 전파나 映像의 media로 因하여 깊은 思考의 能力을 弱화시켜서 대중의 두뇌를 스스로 探求하는 意志力에서 機械的 힘에 依存하는 意타심을 키워준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自制力을 弱화시켜 스스로 생각하고 行動할 줄 아는 判斷과 理性的인 판단을 피하는 것을 文化시켜 나가지 않나 하는 것이다.

mass-media가 우리들 생활에 편리한점을 가져다주는 反面, 能力의 根原을 懶怠 내지는 依他로 變化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때 인쇄 media와의 相互 長短點을 容해서 우리들 生活에 받아 들이는 受信機術乃至는 態度를 發達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한 課題라고 하겠다.

다른 media와 비교하여 圖書의 長點이란, 첫째, 조직적인 思考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즉 著者の 경험인 독자의 경험으로 代身될 수 있으며 生

活經驗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혹은 시청각화되지 못한 개념도 전달할 수 있어, 組織的인 思考能力을 가지게 된다고 보겠다.

둘째,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로운 速度로 읽을 수 있다는 點이다.

다른 media들은 메스컴이 發達한 現代에서 복잡한 기계류의 장치가 必要하겠지만 圖書는 스스로의 취미 성향에 따라 읽을 거리를 選擇할수 있다는 自由로움이 있는 것이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mass-media와 아울러 인쇄된기류의 媒體役割도 매우 重要함을 否認할수 없을 것이다.

4. 어린이의 成長過程

讀書指導의 具體的인 提案에 앞서 어린이들의 두뇌 발육이 어떠한 過程을 거치는가에 對하여 잠시 살펴보고 具體的인 指導方案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人間은 태어나면서 먼저 피부로 주위를 감식하기 始作한다.

이 같은 期間이 경과하면 차츰 五官이 열리게 되어 보고 듣고 맛을 느끼며 意思의 表現을 하나, 둘 익혀 나가게 된다.

3세를 지나 4세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웃을 잘아 입는다든가 단순활동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이 같은 것이 5세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많은 自活學習을 習得하게 된다. 卽 사물을 보는 두뇌의 作用이 急速度로 진보되는 것으로, 비록 知識은 短篇的이나 觀念의 世界가 넓어지고 정서적 活動領域이 확대되며 使用言語의 數도 2200~2500으로 늘어나 言語를 媒介로 하여 다음 단계로 상상이나 知識을 구성해 나가며 前進을 爲한 助言과 격려는 활발한 成長의 原動力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固定된 形의 꽃이나 사람, 自動車를 되풀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生活속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을 그리기는 하되 잘 정리된 것은 아니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도식적이고 관념적인것에서 조금씩 체험의 表現을 섞어가며 주위의 사물을 익히는 幼兒의 卒業期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처럼 모든 事物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知識의 水準이 急速度로 成長하는 時期에 自發的인 能力을 啓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場所와 時間을 제공하고 탐구하는 精神姿勢의 올바른 指導를 하여 줄 의무가 成人들에게 있다.

6세에 이르면 대개의 일은 무엇이든지 혼자서 思考하고 行動할 줄 알게 된다.

취학이전, 5세이상 어린이들은 저절로 자랄수 있다는 안일하고 회피적인 姿勢를 벗어나 좀더 가까이서

보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躰질이 되도록 힘써야 할것이다.

즉 5세이상 미취학 어린이를 보다 알차게 자라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서는 우선 책을 가까이 하는 讀書의 습관을 비롯으로 키워 준다면 成長하는 과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 誠實하고 근면하며 探求의이고 知的인 生活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5. 讀書動機 誘發의 指導 및 讀書能力 發達過程

冊을 읽는다는 것이 人間形成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들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讀書에 對하여 觀心을 갖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준다는 것은 매우 힘든 課題인 同時에 重要한 課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強制性을 수반한 지도가 아니고 스스로 讀書하는 活動을 갖추도록 指導해야 한다는 점이 重要하다.

自發的인 讀書活動은 個人의 內面的 欲求와 興味에 의해서 發生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讀書意欲과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努力하여야 하겠다.

어린이들의 日常生活에서 독서동기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으로는 雜誌, 이웃어린이 父母兄弟 姉妹, 주위의 圖書館, 書店 아동문고등을 들수 있으며, 이들 주위의 理解와 協力으로 어린이들의 讀書生活이 健全하고 바람직한 方向으로 誘導될 것이다. 讀書의 動機誘發을 促進시킬 수 있는 方法을 몇가지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첫째, 지도자가 冊의 一部를 읽고 설명하여 준다.

둘째, mass media를 併用하여 독서의욕을 促進시킨다.

셋째, 資料選擇 및 구입은, 可及的인 어린이의 意見을 參작한다.

넷째, 어른들의 어린이를 위한 좋은 독서흥미의 상담자가 되어 준다.

다섯째, 冊을 읽고 얻은 知識을 그림극이나 슬라이드, 연극 등으로 하여 興味를 持續시키도록 努力한다.

여섯째, 問題解決을 위한 資料를 찾아준다든지 소개하여 준다.

이상 열거된 항목이외에도 시시각각 환경변화에 따라 適應하도록 지도하므로써 “冊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굳어지고 “冊을 반드시 읽어야한다”는 암시적 잠재의식이 뿌리를 내릴수 있게 된다.

적극적인 독서동기의 유발에 의해서만이 眞正적으로 讀書能力이 發達하게 되는데 독서발달과정을 살펴보면 大體로 다음 8段階를 이룬다고 Getes T.A는 주장하고 있다.

(1) 前讀書期——취학전

- (2) 讀書 레디니스(Readiness) 期——國民學校 1학년 初
- (3) 讀書開始期——國民學校 1학년 中間期
- (4) 獨立讀書期——國民學校 1학년 2학기
- (5) 初等讀書後期——國民學校 1학년 後期
- (6) 讀書過渡期——2학년~3학년
- (7) 中等讀書期——3學年~6學年
- (8) 성숙독서기——6학년~中1學年까지의 年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의 단계에서 어린이의 讀書活動期가 비교적 幼年期에서 始作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러면 讀書能力을 심어주기 爲하여 어떻게 興味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되고 있다.

곧 어린이가 讀書을 하기 위한 能力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興味를 가져야 하며 그 興味를 發達乃至는 啓發해 주어야 할 책임을 成人들은 느껴야 한다.

興味の 發達段階를 大體로 다음 몇 단계로 구분지어 보던

첫째 옛이야기 期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옛이야기라 함은 초현실적인 상상의 세계를 그린 설화를 말한다.

이 時期가 大體로 4세에서 8세까지이다.

둘째, 童話期(8~9세)

童話나 戰勝이야기(英雄호걸의 이야기) 架空의 이야기 科學이야기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期間에 읽어주고 이야기 함으로써 冊을 가까이 하여야 하겠다는 興味를 일깨워 준다는 것이 독서능력 발달에 至大한 影響을 끼치게 된다.

6. 讀書指導方法 및 環境의 造成

興味를 느끼기 始作하는 어린이들에게 지속성을 부여하여 주고 스스로 冊을 찾는 습관이 몸에 익혀간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이들에게 그 興味를 유도하여 冊 읽기의 指導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指導는 반드시 目標과 計劃이 설정되어야 하며 무리함이 없이 具體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指導能力에 成長을 이룩하게 되며 指導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게 된다.

指導의 順序를 살펴보면 첫째 독서지도의 目標를 確認하고 둘째 어린이가 지닌 讀書能力 및 傾向實態를 파악하며 셋째, 場所選定이 檢討되어야 하고 넷째, 地域社會의 讀書環境을 觀察하고 다섯째, 독서지도후의 評價基準을 設定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와 계획이 설정되면 實際적인 指導에 임하게 된다.

實際的 讀書指導方法으로는 “間接的인 讀書指導”와 “直接的인 讀書指導方法”이 있다.

間接的인 讀書指導라 함은 資料蒐集, 環境造成, 검색의 奉仕, 利用의 계획 研究계획 등을 말하며 直接的인 讀書指導라 함은 열람지도, 利用指導, 圖書제공, PR 활동 讀書問題兒의 치료지도, 調查活動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間接과 直接的인 讀書指導方法을 병행하여 讀書의 領域과 기술을 지도할 때 讀書指導의 內容이 體系化 되었다고 보겠다.

讀書指導에서 다루어야 할 方向을 短的으로 表現한다면 다섯가지 要素를 들 수 있다. 즉 讀書의 必要性, 讀書의 內容, 讀書의 場所, 讀書의 時期, 讀書의 方法 및 態度이다.

다시 말하면 冊을 읽어야 하고, 冊에서는 무엇을 얻게 되고, 어떤 때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를 充分히 指導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冊을 읽을 수 있도록 環境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주위가 너무 산만하다던가 혹은 혼자서 너무 길히 묻혀 버린다든가 하여 주어진 環境이 부적당할 때 오히려 讀書의 問題兒를 發生시키게 된다. 적당한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有能한 지도자의 가르침으로 良書를 선택하여 읽어야 하므로 環境은 매우 重要하다. 平常時의 讀書場所는 어떠하며, 圖書의 準備는 充分히 마련되었는지, 有能한 指導者가 常住하고 있는가. 주위의 環境은 正화되어 있으며, mass media를 통한 讀書指導方法의 시설 등은 어떠한가를 참작하여, 環境 구성이 讀書指導의 效果를 높임과 同時에 어린이 스스로도 冊을 읽을 수 있는 興味를 加一層 고조시켜 주고 있음을 통찰하고, 미취학 어린이들이 冊을 알지 못하고 文字를 읽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자칫, 소외되기 쉬우나 이들을 책을 통한 흥미유발을 어떻게 環境속에서 유도하여 배움을 줄 수 있을가를 깊이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7. 讀書指導中 發生하는 讀書問題兒의 處理方案

독서지도가 본체도에 올라 스스로 冊을 찾는 습관과 冊을 읽는 버릇이 몸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필히 겪어야 하는 題를 살펴보고자 한다.

“讀書問題兒”란 選定된 圖書에 적응이 부적당하고 讀書活動이 정상적이 아닌 어린이를 “讀書問題兒”라고 지칭하는데,

이런 경우는 讀書能力에 異常이 있거나 興味와 그밖의 제한 條件이 맞지 않는데서 發生하며 個人으로는 讀書人格이 지속하다든가 變態적이어서 讀書에 임하는 태도나 人格의 적응이 不健全한 것을 말한다.

讀書問題兒의 形態는 大體로 다섯가지 形態로 區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 첫째가 讀書지진아이다.

讀書能力이나 精神能力이 낮은 어린이를 말하지만 이런 어린이를 구제할 수 없다고 지도를 중단해서는 안되며 그 어린이의 能力에 알맞는 독서물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독서력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는 독서부진아이다.

정신능력 즉 지능은 떨어지지 않는데 反하여 讀書能力만이 수준에 미달되는 어린이를 말한다.

대체로 이런 어린이는 자신의 결함보다는 주위환경이 주는 영향으로 因하여 發生되는것으로 充分한 指導로서 讀書能力을 伸長시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독서편향아이다.

이것은 讀書能力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한 부분 즉 本人의 취향이나 오락본위의 讀書에만 치중한다는 것이다. 또는 科學關係라든가 文學關係의 외쪽으로 심취하여 讀書하는 버릇이기에 이것 또한 꾸준한 지도로서 치료될 수가 있다. 편향의 발견은 讀書興味를 조사한 다거나 平常時 읽는 冊을 기록으로 조사하면 可能한 것이다.

넷째는 독서조숙아이다.

어린이의 讀書能力이 뛰어나게 發達되어 연령에 어울리지 않게 수준높은 讀書를 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지능과 讀書수준이 비교적 다른 아동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칫 편향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現實과 精神世界의 生活에 人格的 적응이 불건전하여 問題兒로 취급되는 것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도할 必要가 있다.

다섯째로 독서도과다아를 말할 수 있다.

生活에 興味가 讀書에만 기울어져 있어 生活態度나 方向을 바르게 잡아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이다.

비교적 幼年期보다는 사춘기의 다감한 연령층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런 어린이는 生活의 조화를 깨트리기 쉽다. 혹은 독서편향 乃至는 讀書조숙 등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以上과 같이 讀書段階가 본 程度에 오르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진통을 알아보았다. 上記 問題兒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는 지도자의 誠意있는 指導力이 결실히 要望되는 것이다.

圖書에는 여러가지 種類가 있고 이들 圖書는 各各 서로 다른 혹은 서로 연관된 特性들로 구성되어 있는 點을 充分히 감안하여 성장 발달단계에 알맞는 圖書를 폭 넓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주고 必要에 따라서는 目的에 알맞는 圖書를 利用하여 圖書를 自己 生活와 行動에 부합시킬 수 있는 能力을 進進하고 正確된 讀書態度로 育成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되면 결코 讀書問題兒는 發生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기풍이 조성된다면 來日의 讀書界에 밝은 서광이 비칠것이 확

실하다.

8. 讀書指導를 통한 圖書館奉仕活動領域의 擴大

就學以前의 어린이를 위한 讀書活動展開 및 그 指導를 주축으로 도서관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혀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미취학어린이들이 父母로 부터 관심도가 낮아 어린이들의 하루 일과를 수수 방관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너무 지나치게 관심도가 높아 간섭이 심하여서 반구속적 보호를 하는 경우등 自立의 씨앗을 방치 또는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일이 적지않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문제아로서 社會의 지탄을 받게 되고 어떤 아이는 의기소침하고 나약한 청소년으로 성장되기도 한다.

이같이 家庭의 生活에서 자칫 소외 내지는 지나친 보호로 자라나고 있는 취학이전의 어린이들에게 우리 圖書館인들이 눈길을 돌려 보호육성해 나갈 수 있다면 크게는 國家的 次元에서 볼때 未來이 힘이 되는 것이고 건전한 사회 기풍은 특별한 기획의 지도없이도 自然的으로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오늘날의 도서관 奉仕활동 領域이란 도서관을 찾은 이에게 局限되거나 社會部分的인 교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도서관봉사 영역이 가정단위로 침투될때 圖書館의 社會奉仕는 폭넓고 認定받는 기관으로 발돋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現在 大部分의 公共圖書館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 열람실을 좀더 폭을 넓혀 미취학어린이를 위한 특수 열람실로 확충하고 有能한 指導者를 확보하여 독서동기 유발을 촉진시켜주도록 한다면 어린이의 독서습관형성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有能한 讀書指導者로는 면접과 전화 및 서신을 통해 讀書에 관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充分히 갖추어야 하며 兒童文學作品에 對하여 깊은 理解와 研究가 있는 분으로 어린이를 돌볼줄 아는 性格의 所有者이어야 한다.

특히 讀書問題兒의 치료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資料의 選定 및 讀書問題 開發研究에 끊임없이 精進하는 분이라야 하겠다.

다시말해 미취학 어린이를 爲한 特殊閱覽室을 마련하여 圖書館機能을 擴大하고 有能한 지도자를 발굴하여 상주시킨 후에, 充分한 圖書를 選定 備置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선정자료는 비단 圖書類에 限定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시청각기재를 通한자료들도 계속 비치하여 活用한다면 더욱 독서 興味유발에 기여할 수 있게 될것이다.